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저는 졸업하기 전에 꼭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Summer Session program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Summer Session program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지만 운이 좋게도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유럽을 이미 갔다 왔고,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미국 여행까지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후기에서 적은 돈으로 싱가포르에 갈 수 있다는 사기적인 후기를 보고 NTU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일단 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와 여행비=140만원, Tuition fee는 내지 않지만 Administration Fee가 있고, On-campus Housing와 GST(Tax)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내면 Singapore dollar로 S\$2100정도 듭니다. 지금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72만원정도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최소 312만원정도가 들고, 대중교통 요금 등 기타 비용을 더하면 NTU가는데 330만원이 듭니다. 학교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으면 230만원 정도에 7월달을 싱가포르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1. 출국 전 준비사항

우선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syllabus를 이수곤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yllabus와 일정을 참고하여 원하는 과목을 정하고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Guide을 학교에서 주는 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지원을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Guide을 메일로 받으셔서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과목은 Track 1 - Track 4로 구분되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Track 1 Chinese & culture같은 수업의 경우 한국인이 많으며 수업은 재미있게 진행된다고 룸메이트였던 형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Track 4에서 Cultural Intelligence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자의 경우 저는 한과목만 들었기 때문에 따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수로 48시간이면 3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데, NTU에서 3AU로 열리는 과목들이 30시간 내외이므로 대부분 자유선택 2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 랜선, 멀티어답터 같은 필수품은 챙겨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2. NTU 가는 길

가는 방법에는 Taxi를 타는 방법이 있고, MRT(subway)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이 공항에서 Taxi타고 가시면 3~4만원정도가 들고, MRT을 타고 NTU 근처에 있는 station으로 간 후 Taxi를 타시면 만원 정도가 듭니다. 창이 공항에서 친구들이랑 Taxi를 타고 NTU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싱가포르 여름은 장난이 아닙니다. 공항에서 Sim-Card를 사주셔야 합니다.

3. NTU life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Track 4에서 Cultural Intelligence 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놀고 싶으시다면 이 과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지만;;(절반 정도가 한국인입니다.) Group project가 굉장히 많고, Group activity를 강조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프로젝트가 6명끼리 놀러 가는 것이고, 대충하면 되는 것이라서 '나는 싱가포르에 그냥 놀러 가는데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과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업 방식은 여러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며 이에 대해서 Group activity로 익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러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싱가포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2 Paragraph정도 분량의 English writing 4~5편을 써야 하며 Group Project 중에 연극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짜증나는 과제가 한 번 있습니다. 수업 중에 6명끼리 영어로 Speaking을 많이 해야 하기에 English Speaking ability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비가 좋습니다(ㅎㅎ). 남사친, 여사친 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또한, 남녀상열지사라고 남사친, 여사친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맥주 마시면서 한국어로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별의별 소식이 다 들립니다. Track1과 Track4 - Cultural intelligence가 Hot합니다. 그리고 Summer Session에는 Singapore local들이 없습니다. 다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며 local을 만나시려면 헬스장, 수영장, 맥주를 마시는 Party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농구, 축구, 수영을 하면서 local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친해지기 쉽습니다. local들이 음식을 사주기도 했는데 그 곳이 이케아에 있는 푸드코프여서 ㅎㅎ;; 당황하기도 했지만,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NTU에는 기숙사, 건물 별로 Carteen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각국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가는 곳이 Carteen 1, 2, and North&South spine입니다. 모든 Carteen에 가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 4곳 빼고 다른 곳에 갈 필요

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생활하실 때는 School Bus를 타시면 되고, 수영장,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돈을 내셔야 하는데 두명이서 하루에 S\$1.8정도를 투자하시면 마음껏 트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작은 국가지만 관광지도 많고,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Google map을 이용하시면 싱가포르 정도는 다 커버가 됩니다. 싱가폴은 기본적으로 쇼핑의 도시입니다. 클락키에서 맥주 마시면서 놀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많이 하실 수 있으며, China Town, Little India, Santosa, Night Safari같은 곳에서 여러 특이한 건물을 보실 수 있고, 다양한 음식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말고 현지인이 가는 음식점을 가시길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다가 여기서 음식을 맛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클락키에 있는 다리에서 가끔씩 음식을 파는데 이 음식이랑 맥주를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여성분이시라면 Night view을 즐기시러 가실 텐데 Sands hotel에 갈 필요 없이 여자들끼리 Altitude에 있는 rooftop bar에서 칵테일 한잔씩 드시면서 night view을 즐기시면 됩니다. 호텔 꼭대기에 있는 수영장에 가고 싶으시다면 싱가포르 가기 전에 호텔 예약해서 가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다녀오는 것은 비추입니다. 분위기는 싱가포르하고 비슷했으며 갔다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와 사진이 있지만 2장이 넘었으므로 이만 쓰겠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문제와 여러 잡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후기에 다 나와있어서 저는 싱가포르에서 지냈던 일들을 중심으로 적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다면 싱가포르에서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은 작지만 할 것이 어느 정도 있고 쇼핑하고 놀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NTU에 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Summer Session으로 싱가포르에 가는 분들이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오고, 소중한 사람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